

## 텍스트 뒤에 숨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 해부

문학작품의 무의식 구조, 역사인물의 심층심리 파헤쳐

최근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치료를 넘어서 인문학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비평하거나 역사인물의 심층심리를 파헤쳐 텍스트 뒤에 숨은 인간의 얼굴을 복원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대인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수렁이 있게 마련이다. 유년기의 상처, 가족간의 불화, 연인의 변심, 해고위협... 현대인들의 이런 복합심리는 서점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때 정신분석의들의 심리치료 에세이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식했던 것은 우리의 정신적 환부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분석의들의 에세이는 여전히 비소설 코너의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지난해만 해도 이나미의 《사랑의 독은 왜 달콤할까》(한겨레신문사), 정혜신의 《불안한 시대로부터의 탈출》(명진출판), 정유석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아프다》(중앙M&B), 김정일의 《아직 꿈꿀 권리가 나에게 있다》(웅진출판) 등이 개인의 정신질환과 사회병리 현상을 해부하고 처방전을 제시했다.

### 학제간의 연구성과 반영

최근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치료를 넘어서 인문학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분석하거나 역사인물의 심층심리를 파헤쳐 텍스트 뒤에 숨은 인간의 얼굴을 복원하고 있다. 이는 학문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학제간의 연구성과를 아우르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먼저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탐색이 주목할 만하다. 이부영씨(한국융연구원장)의 《그림자》(한

길사)는 융의 '그림자' 개념을 원용해 우리의 마음과 사회현실, 그리고 전통사상을 분석한다. '분석심리학의 탐구' 삼부작 중 첫째권인 이 책은 자기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의식화해갈 때 민주주의와 집단의 성숙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정신분석학은 문학비평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조두영 교수(서울의대 정신과)의 《프로이트와 한국문학》(일조각)은 심리학·정신의학·정신분석학을 문학예술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다. 총론에서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소개한 후, 각론에서 작가 이상과 손창섭 그리고 그들의 작품 속 주인공을 분석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문학작품 속에는 작가의 심층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 문제적 개인으로 비춰본 시대상

문제적 개인의 심리를 심층해부해 시대상까지 읽어내려는 시도도 나왔다. 이종오 교수(뉴욕주립대 정신과)의 《이광수를 위한 변명》(중앙M&B)은 이광수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흑백논리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그에 대해 공정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한국 근대사의 모순이 축약된 이광수를 단죄하기에 앞서 그에게 '무죄 추정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작가나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역사인물도 정신분석의들의 임상실험 대상으로 자주 오른다. 입체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

를 읽어내는 데는 역사인물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신용구씨(용인정신병원 정신과 과장)의 《콤플렉스로 역사읽기》(뜨인들)와 김석대씨(김석대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의 《시커먼 구름도 속살은 희다》(북앤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책들에서 우리는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갔거나 편견의 틀에 갇혀 있던 인물들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과 만난다. 예컨대, 궁예나 연산군에서 오이디푸스적 분노의 폭발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아가 약한 반사회적 성격의 변태성욕자가 저지른 엄청난 과오의 역사적 선풍을 히틀러에서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정신분석의들의 인문 교양서 출간에 대해 이나미씨(이나미신경정신과 원장)는 "우리사회에서 정신분석학이 대중화됐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의 심리적·내면적 탐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인문학 텍스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신분석학과 인문학의 만남은 음지에 자리잡은 인간의 심층심리를 과학의 빛 아래로 이끌어낸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성과 합리성의 폭력성이 자명해진 현대사회에서 정신분석의들의 행동반경은 더 넓어질 듯하다. — 박천홍 기자